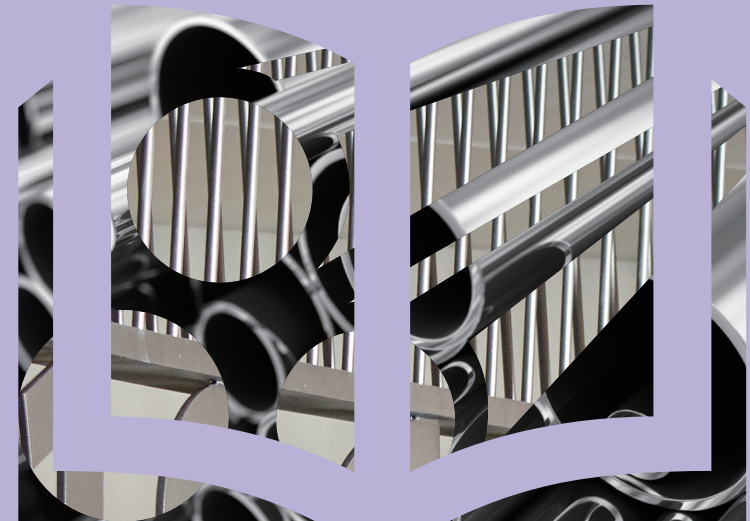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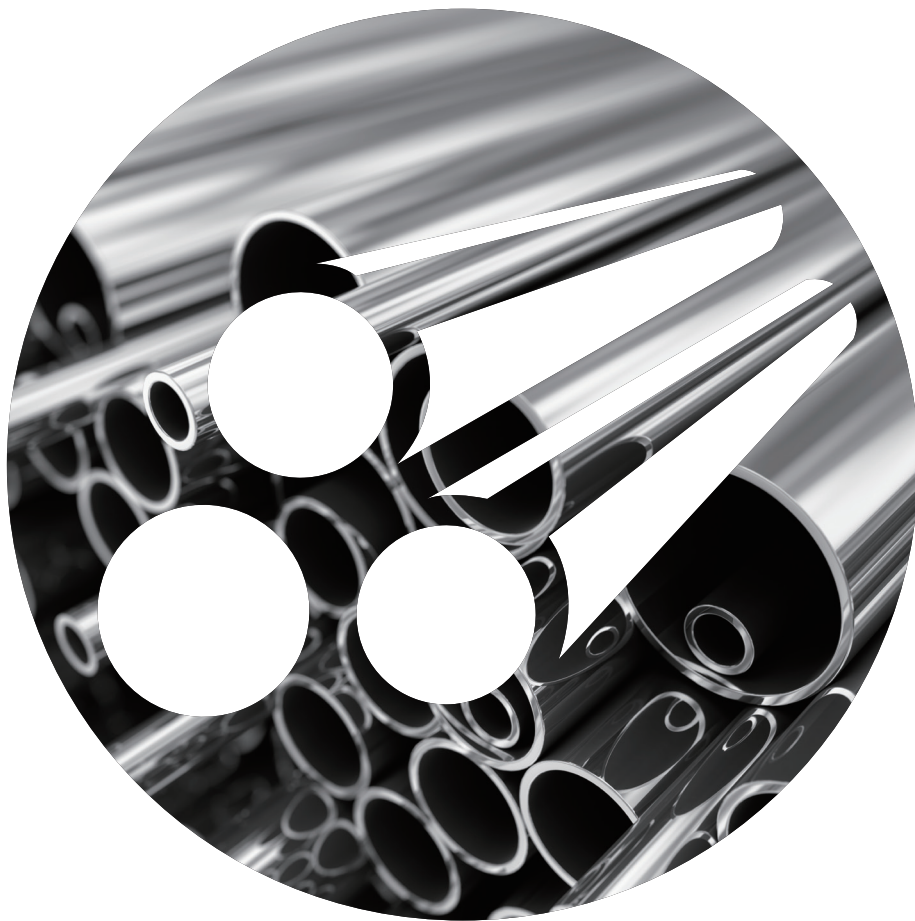
세상에는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날카롭고 차가워 보이는 철에도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은빛의 메탈 자체로 멋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악기와 건축물, 장식품으로 탈바꿈하여 아름다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2019년 <세아가족>에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철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세 아 가 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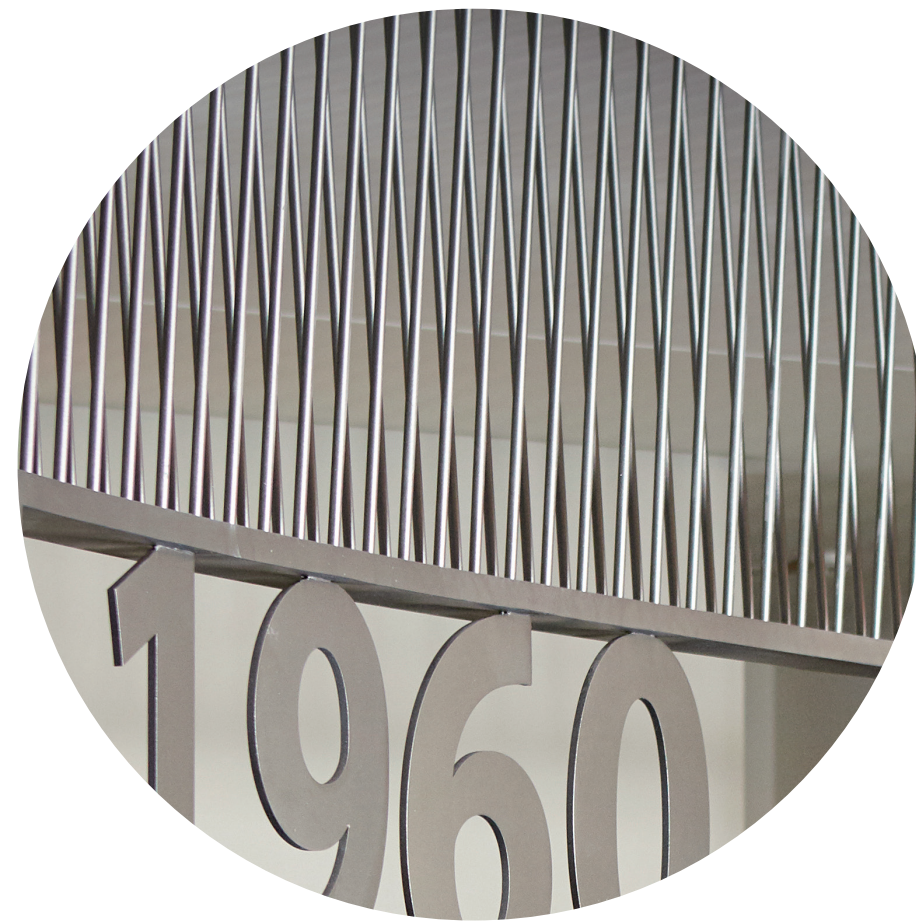
세 상 을 아 립 답 게 하 는 사 람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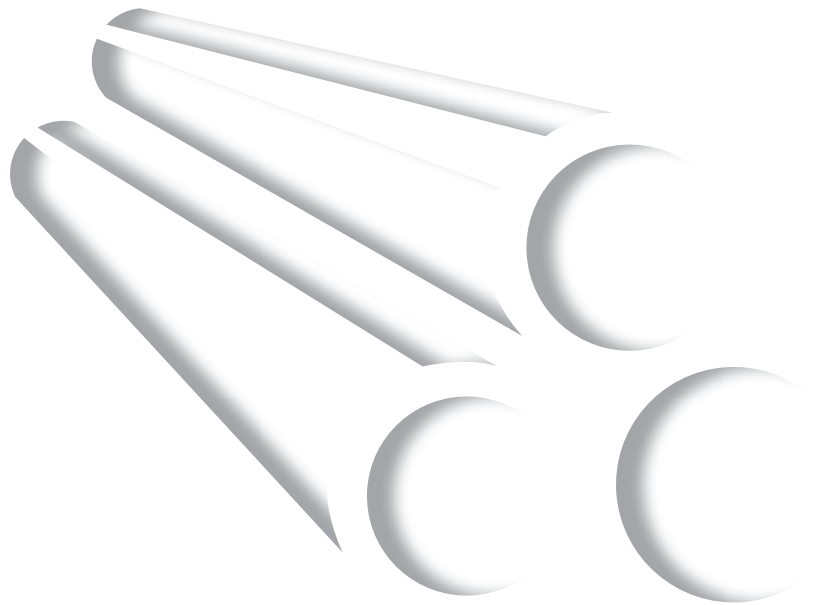
2019 11 + 12



철강 시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학술과 산업



철강의 미래를 말하다



철강의 미래를 말하다



학계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미래 소재를 개발하고,
 세아제강지주는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학술과 산업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수요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이번 호 <세아가족>은 철강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지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을 추천해주세요. 또한 상담이 필요한 고민거리나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이유진 대리
yujin.lee@seah.co.kr
02 6970 0093

〈세아가족〉사보 기자

안미경 세아제강자주 재경파트 (서울)
노승미 세아제강 인사팀 (서울)
이병준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포항)
강태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군산공장)
장호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순천)
정민수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창원)
황미라 세아제강 영남영업파트 (부산)
성혜진 세아베스틸 기획팀 (서울)
정보람 세아베스틸 업무지원팀 (군산)
허지윤 세아창원특수강 기획팀 (서울)
박소현 세아창원특수강 업무지원팀 (창원)
최성희 세아씨엠 업무지원팀 (군산)
류상우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 (서울)
여환진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 (포항)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 (충주)
윤가영 세아 FS 인사기획팀 (서울)
안광수 세아 FS 업무지원팀 (평택)
정재원 세아 ESAB 재경팀 (창원)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부산)
최경민 세아 M&S 경영지원팀 (서울)
김진우 세아 L&S 재경기획팀 (서울)
이상진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 (대전)
최은누리 세아네트웍스 인재개발팀 (서울)

CONTENTS



- 04. 프롤로그**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산업의 쌀, 철강
- 06. 세상과 함께**
철강 소재의 미래를 말하다
—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우영 교수
- 14. 세아와 함께**
철강 산업의 미래를 말하다
— 세아제강자주 성과관리팀 공봉용 팀장
- 20. 스페셜 뉴스**
한눈에 보는 세아의 2019년
- 24. 세아 포커스 I**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
- 28. 세아 포커스 II**
그룹 최초 아디펙(ADIPEC) 2019 참가로
중동 시장을 공략하다



- 30. 철의 장인**
최고를 향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 세아 M&S 생산팀 배소파트
정성훈 선임
- 36. 글로벌 리포트**
현지 법인 설립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허물다
— 세아재팬(SeAH Japan Co., Ltd.)
- 40. 아름다운 세아**
하민이에게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 44. 최과장의 심리상담**
세아인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 48. 세아 패밀리**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담아,
특별한 만삭 사진을 기록하다
— 세아베스틸 글로벌마케팅팀 장원 대리
- 52. 도구 열전**
음식 역사를 바꾼 보존식품
— 통조림
- 54. 세아 뉴스**
- 56. 사우 동정**
- 57. 내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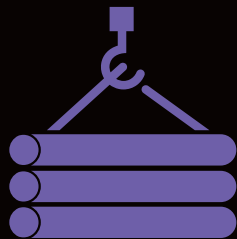


발행일 2019년 12월 20일(통권 384호) ISSN 2636-1787 발행인 천정철 발행처 세아홀딩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02 6970 0093 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Studio KENIN

*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산업의 쌀, 철강

Iron and Steel



“철강은 우리 삶의 어디에나 있고
현대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심에 있다.”

세계철강협회 사무총장인 에드윈 바송(Edwin Basson)이 한 말이다. 철은 기원전 15세기경 소아시아 히타이트인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인류는 철을 이용하면서 강한 도구와 무기 등을 얻게 되고, 국가가 생겨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었다. 철로 만든 무기는 이전의 석기와 청동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삽·괘이·호미·쟁기·낫 등 연장의 종류가 한층 다양해졌고, 철제 농기구를 통해 보다 손쉽게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 품질 좋은 철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건축 자재로도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도 건축물 골재, 기계 선박, 자동차, 가전제품, 각종 도구 등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철은 한결 같이 인간 사회와 생활의 중심에 있었고 문명 발전에 공헌해왔다. 그리고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므로 철을 ‘산업의 쌀’이라 부른다.



철강 소재의 미래를 말하다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우영 교수

세아해암학술재단은 철강 소재 발전에 기여한 공적자에게 매년 세아해암학술상을 시상한다.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우영 교수는 나노 에너지 분야 선도적인 연구 수행을 공적으로 인정 받아 2018년 세아해암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교수를 직접 만나 철강 소재의 전망에 대해 묻고자 한다.

나노 에너지 분야 공로로 수상한 세아해암학술상

이우영 교수는 나노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나노갭 수 소센서 및 나노기술을 이용한 실리콘이드 열전 재료를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 나노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이와 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작년 10월에 열린 대한금속·재료학회 정기총회에서 이우영 교수는 세아해암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수상 소감에 대해 밝혔다.

“먼저 이렇게 뜻깊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말할 수 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금속·재료학회에서 선정하는 본 학술상은 금속 및 재료공학 분야에서 학술적 업적이 뛰어난 학자에게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제가 상을 받게 되어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이 교수는 학술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총회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에너지 하베스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법: 나노-열전현상(How to Make a Breakthrough in Energy Harvesting: Nano-thermoelectricity)’이라는 주제로, 열을 전기로, 전기를 열로 바꾸는데 필요한 변환 효율이 좋은 에너지 소재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교수는 열전현상이 지속되려면 온도 차이가 필요하고, 따라서 전기는 잘 흐르지만 열은 되도록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련 기술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현재 상용화된 것은 와인 냉장고뿐이지만, 향후 자동차의 엔진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 주변에 낭비되는 폐열, 진동 등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 발전소 또는 공장의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이 가능하고 가까운 미래에는 체온으로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열전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나노 열전 소재에서 전기강판까지

이우영 교수는 나노 및 에너지 소재 분야 전문가로 나노 열전으로 학문적 기초를 닦고 열전 변환 재료의 실용화를 위해 최근에는 벌크 열전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고온에서 성능이 매우 우수하고 값이 싼 실리콘을 이용한 실리콘이드 물질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다.

“소재기술은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서 자동차의 엔진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뿐 아니라 발전소 또는 공장의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상용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산업 분야는 제조 공정 중 막대한 폐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회수하는 기술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벌크 열전 재료가 조만간 상용화되어 철강 산업에서 에너지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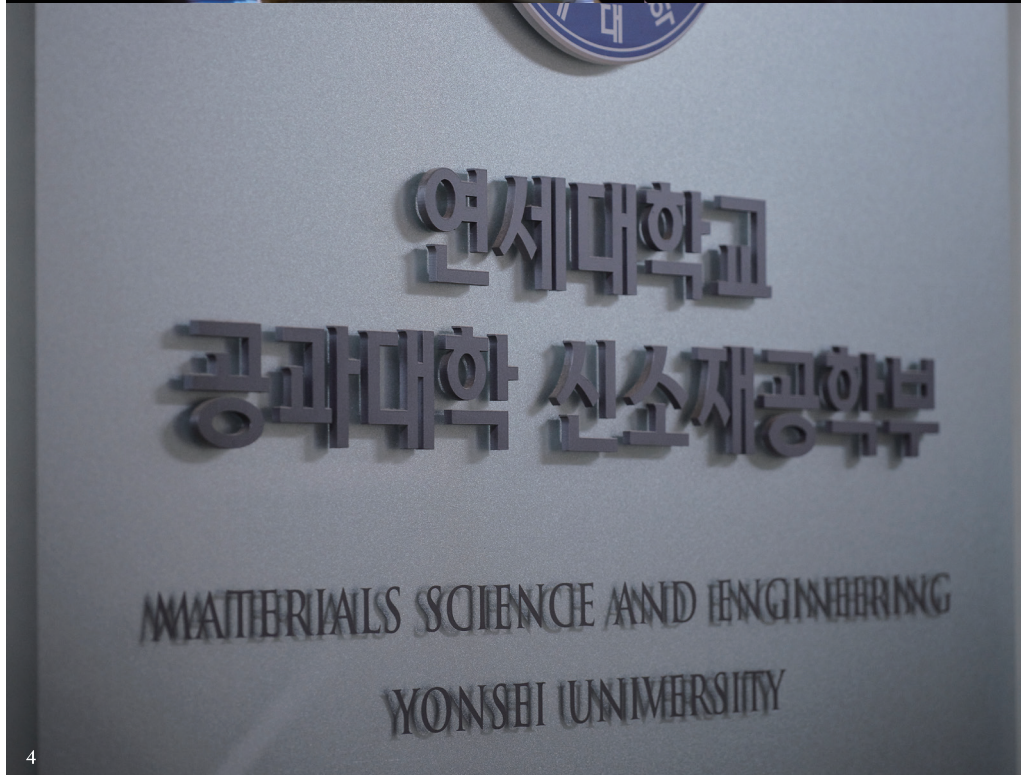
1 - 이우영 교수는 2018년도 대한금속·재료학회 정기총회에서 세아해암학술상을 수상했다.

2 - 교수실에서 최신 논문을 읽고 있는 이우영 교수



“지난 20년간 철을 대체할 다양한 신소재가 연구되면서 대체 소재와 경쟁을 치러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 3 - 랩실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우영 교수
- 4 - 이우영 교수는 2003년부터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몸담아 왔고, 2018년부터 학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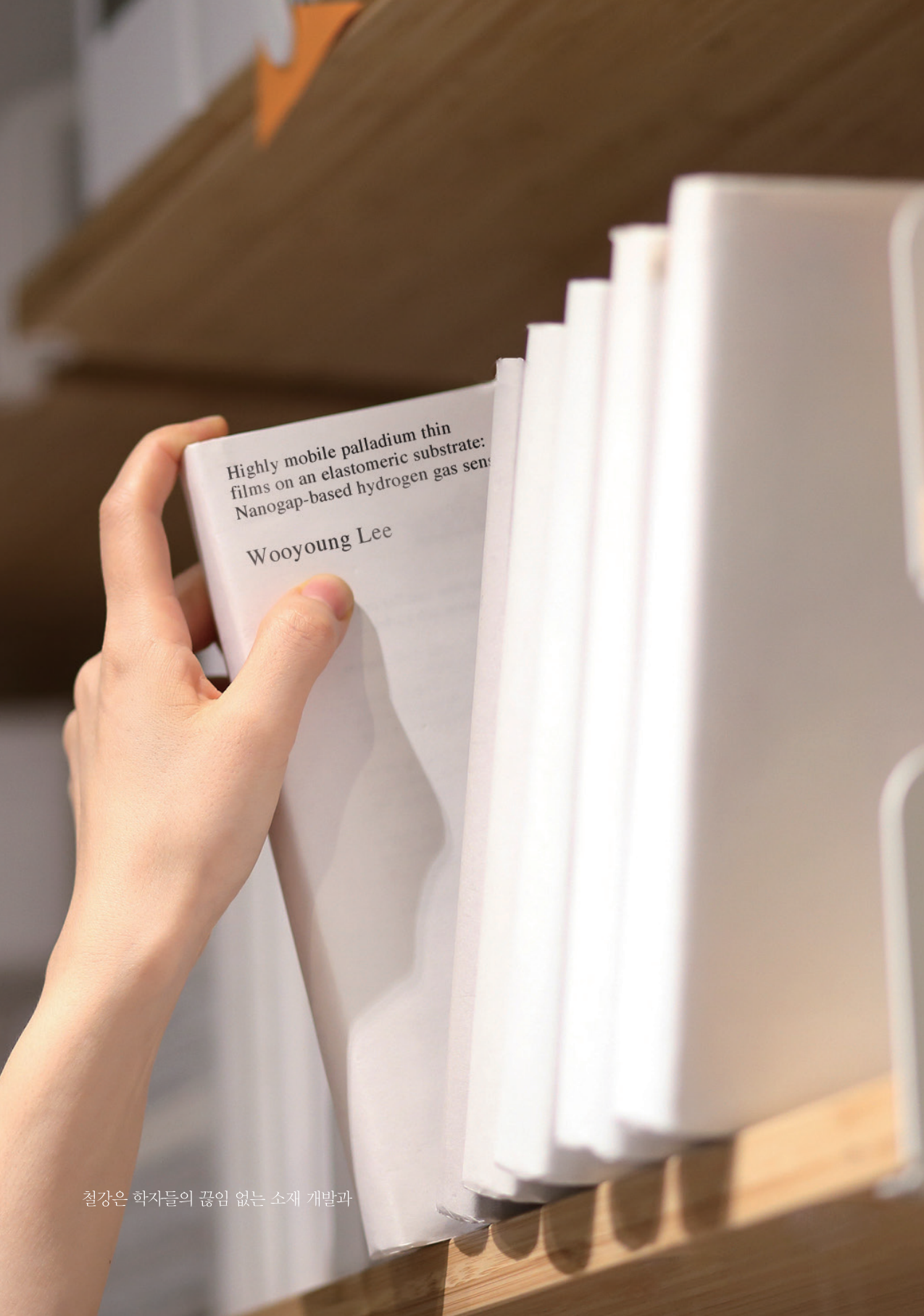
또한 이우영 교수는 한 철강기업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차세대 전기강판(Electric Steel)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적용 가능한 합금기술과 이에 따른 지구 제어기술을 연구 중인데,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분야 중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부품인 초고성능 모터 개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의 오랜 학문적 기반인 '자성(Magnetism)과 자성재료(Magnetic Materials)'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우영 교수가 전망하는 철강 소재의 미래

인류의 문명은 철(Fe)의 이용과 더불어 발전해 왔으며, 21세기 들어서도 철은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 중의 하나이며 차량, 선박, 항공기, 주택, 각종 생활용품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류에게 있어서 철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금속이다. 철강 소재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우영 교수는 "150년 전 독일의 사회학자 엥겔스가 '철이 인류에 봉사함으로써 그것은 역사상 혁명적인 작용을 한 원료 가운데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설파하였듯이,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지금도 철은 진화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20년간 철을 대체할 다양한 신소재가 연구되면서 대체 소재와 경쟁을 치러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전히 철만이 갖는 고유 특성으로 경제·산업계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 영역을 더욱 확고히 해 왔습니다. 이에 초고강도, 초고장력강, 무진동강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친환경 강판 즉, 크롬프리 아연도금강판, 전자파 차폐강판, 자가 복원(Self Healing) 강판 등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철의 고유 특성인 자기 특성을 제어하여 최고 성능의 전기강판과 연경자성(Soft & Hard Magnet) 재료의 개발이 요구되며, 망간(Mn)을 일부 첨가하여 자성이 완전히 사라져서 비자성강으로 변신하는 합금 기술도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도 미래 철강 연구에 곧 적용되어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 부가된 철강 제품을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대체 소재가 늘고 철강 수요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철강사가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하려면 고부가가치 제품이 필요하다.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철강 수요 산업의 요구에 맞춘 철강 소재 개발은 이제 불가피해 보인다. ☺



철강은 학자들의 끊임 없는 소재 개발과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발전해왔다.

철강 산업의 미래를 말하다

세아제강지주 성과관리팀 공봉용 팀장

세아제강지주는 지난해 9월 기존의 '세아제강'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되면서 자회사 관리 및 신규 사업 등 투자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국내외 자회사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세아제강지주 성과관리팀은 각 계열사의 현황을 파악해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전략 로드맵을 수립했다. 성과관리팀으로부터 세아제강지주의 중장기 전략과 철강 산업의 미래에 대해 들어본다.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한 지주회사 출범

철강 수요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대내외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세아제강은 사업 분할, 국내외 인수합병(M&A), 법인 신설 등 다양한 변화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세아제강 산하 국내외 자회사가 증가했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회사 관리와 신규 사업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지난해 9월 세아제강은 투자사업을 총괄하는 '세아제강지주'와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세아제강'으로 분할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공봉용 팀장 역시 세아제강에서 세아제강지주로 이동했다.

“제가 팀장으로 이끌던 세아제강 글로벌전략팀 전체가 세아제강지주 성과관리팀으로 이동했습니다. 업무는 유사하지만 그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세아제강 글로벌전략팀에서 해외 자회사 관리만 담당했다면, 세아제강지주 성과관리팀에서는 세아제강, 세아씨엔, 동아스틸 등 국내 자회사까지 모두 포함한 국내외 자회사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지주 산하 모든 계열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아제강지주는 국내의 강관 자회사의 전문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강관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강관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1 - 세아그룹 60년의 역사가 담긴 사진 속에 자리한 세아제강지주 출범식
2 - 공봉용 팀장이 중장기 전략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고민해온 지난 1년

세아제강지주는 세아제강, 세아씨엔, 동아스틸을 비롯한 국내 자회사 4곳과 SeAH Steel America(미국), SeAH Steel Vina(베트남) 등 해외 자회사 13곳, 총 17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공봉용 팀장은 자회사의 환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보다는 자회사의 독립경영 및 자율경영을 지원하는 보좌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지주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계열사의 대내외적 환경 요인이 모두 다릅니다. 이에 제조 및 운영혁신(Manufacturing Excellence) 활동을 통해 객관적으로 표준화된 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장별 수준과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한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장별 조직 규모나 인력 운영 등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팀은 가장 필요한 부분을 찾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 중장기 전략 자료를 읽고 있는
공봉용 팀장의 모습

4 - 세아제강지주가 관리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현황

“철강 산업 트렌드는 현지 생산, 현지 판매(Regionalization)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아제강지주는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각 계열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한 지원과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법인인 SeAH Steel Vina는 제2공장 투자를 통하여 제2의 도약을 진행 중이며, SeAH Steel USA는 튜빙 공장 건설을 통하여 미국 내 OCTG 전문 생산공장으로 입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조법인의 지속적인 설비투자 검토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계열사의 임직원들이 참여 하는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 활동 등을 통해 신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유명한 격언을 교훈 삼아, 제품 포트폴리오 및 판매지역 다변화를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모든 사업장이 자생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공 팀장은 말을 덧붙였다.

철강 산업의 미래, 그리고 세아제강지주의 중장기 전략

중국발 공급과잉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철강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Section 232 무역 조치로 인해 갈 길을 잃은 물량들이 국내시장으로 돌아서면서 공급과잉에 따른 출혈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해외시장은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인도 제품들과 각국의 비무역 장벽 강화로 인해 대체 시장 발굴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의 철강 산업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

공봉용 팀장은 “현지 생산, 현지 판매(Regionalization)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글로벌기후협약 등으로 인한 화석 연료의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Wind Power) 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죠. 이처럼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세아제강지주는 기업의 지속 생존 및 번영을 위해 3단계로 구성된 중장기 전략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기회 요인분석으로 당사만의 차별적 경쟁력을 정의했고, 이를 토대로 회사의 성장축을 캐시 카우(Cash Cow), 성장(Growth), 미래(Future)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OE(Operation Excellence) 부분을 추가하여 각각의 중점추진과제 및 전략들을 수립하였습니다.”고 말했다.

세아제강지주 성과관리팀은 ‘아무리 좋은 전략도 공감되지 못하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프로젝트 초반부터 팀 전원이 현업 실무진들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성과관리팀은 조력자(Facilitator)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전사 차원의 중장기 전략'20-'22) 수립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목표한 중장기 전략을 통해 세아제강지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 ♡

한눈에 보는 세아의 2019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2019년 세아그룹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급변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세아인의 땀과 노력이 담긴 지난 2019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20년을 전망해본다.



1 - 세아베스틸-오라노티엔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 협정 체결

신규 사업 기회 발굴

세아베스틸은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글로벌 원전 시장 1위 사업자 오라노(Orano)사의 자회사 오라노티엔(Orano TN)과 총 17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CASK)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CASK는 원전의 유지 관리 및 해체사업 등에 필수품목인 만큼 특수강 사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아네트웍스는 작년 12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르완다 교육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립

대학교 건립 사업을 수주,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수주 건은 세아네트웍스 내 단일 계약 건 중 최고 규모로 약 421억 상당의 프로젝트이며, 교육/IT/건설 등 교육분야 EDCF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세아 FS는 현대자동차그룹 인도네시아 법인에 진출, 고부가 자동차 튜브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매출 증대 및 더 많은 글로벌 비딩 기회 확보를 기대한다.

2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세아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그룹 내 전략 사업을 강화, 특수강 가공사업 구조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세아특수강은 세아메탈을 자회사로 인수했고, 세아창원특수강은 HPP의 제조사업 부문 CTC를 양수하는 등 각 사의 시너지 제고로 신규 성장 기회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고강도 알루미늄 생산기업 '알코닉코리아'를 인수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세아베스틸은 이번 인수를 통해 철강 소재에 이어 알루미늄 소재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금속 소재 전문업체'로의 입지를 갖추게 되었다.



1 - SSV 제2공장 준공식
2 - 세아그룹-아람코 MOU 체결

3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난 6월, 세아창원특수강의 대구경 강관공장이 아람코의 벤더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승인으로 세아창원특수강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테인리스 계열 전 구경이 아람코 벤더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 무계목 강관 제조기업이 되었다. 이번 계기로 아람코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 중동과 세계 시장 진출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세아창원특수강은 중국 스테인리스강관 제조업체인 '신척실업그룹'과의 합작회사를 설립, 중국 정밀관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세아제강지주 베트남 현지 생산법인 세아스틸비나(SSV) 제2공장이 준공되었다. 제2공장은 구경 2~4인치 일반 배관재 및 유정용 튜빙 제품을 주력 생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지 파이프 생산 능력이 총 37만 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 현지 생산법인인 SP&S는 지난 10월에 West Coast Spiral Pipe의 후속 설비 합리화 개선 및 신규 Tape Coating Line 투자를 완료, Water Pipe와 Pile 수주능력이 증대되어 중/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베트남 생산법인 '세아글로벌비나(SGV)'와 태국 가공/조립 법인 '세아글로벌타이(SGT)'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4

R&D 및 기술경쟁력 강화

세아제강 포항공장은 대경공장 SAW 용접 불량률을 해결하기 위해 수동용접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Tack Welder 기술을 개선했다. 이로써 SAW 용접 불량률이 대폭 감소했고 원가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1

세아창원특수강은 반도체, 자동차 엔진 부품과 같이 미세제어가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고청정 스테인리스 봉강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소재의 국산화를 실현, 내질 불량재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품질평가 기술을 확보하여 향후 창원특수강의 매출, 수익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세아엔지니어링은 주문형 가스 컴프레서(Gas Compressor)를 개발, 신규 고객/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세아엔지니어링은 자체적으로 설계부터 제작 완성단계까지 가능한 기술 수준을 확보했고, 경쟁사 대비 원가 절감 설계 기술을 마련해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했다.

1 - 반도체 생산라인용 고청정 스테인리스 봉강(세아창원특수강)

5

경쟁력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혁신 및 공장 합리화

세아창원특수강은 산세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폐수오니와 슬래그를 섞어 혼합건조파우더 형태의 '에코파우더'를 생성, 부산물 매립제로화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부산물 매립에 따른 비용 상승과 잔여매립지 감소 영향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시켰다.

세아 ESAB은 현장의 주요 낭비 요소를 획기적으로 제거하고자 공장 전반에 걸쳐 레이아웃을 변화시켜 물류 흐름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공정/설비 재배치를 통해 안전성과 수익률을 향상시켰다.

세아엔지니어링은 세아특수강 포항 및 충주공장의 봉강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케일을 효율적으로 포집, 회수할 수 있는 설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생산환경을 개선시켰다.

한편, 세아제강은 올해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에서 6개 강관제품에 대한 인증을 획득, 국내 강관제조사 중 최다 제품이 등재되었다.

6

해외 전시회 그룹 공동 참가

세아그룹은 세아브랜드관리위원회 브랜드 활동의 일환으로 오일&가스 전시회에 그룹 공동으로 참가했다. 먼저, 9월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LNG 중심의 가스텍 전시회에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INOX TECH이 그룹 공동으로 참가하여 전체 LNG 프로세스를 아우를 수 있는 각 계열사 제품의 우수성과 그룹의 실력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또한, 11월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아디펙 전시회에는 최초로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INOX TECH, CTC가 그룹 공동으로 참가해 중동 시장 내 '세아' 브랜드를 홍보하고 산업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1 - 가스텍 2019 세아 부스 전경

2 - 아디펙 2019 중 세아 부스 방문객에게 설명하는 모습

7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활동

세아는 2015년 겨울부터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의료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그룹 공동 나눔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국내 한 저소득가정으로 입양되자마자 소아백혈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하민이(가명)를 도울 예정이다.

올해도 세아에서는 안성 평강공주 보호소 캠페인을 진행하며 유기견들을 위한 산책 봉사를 실시했고, 현재 보호소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세아이온문화재단과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다. 세아이온문화재단은 오페라 인재들을 위한 후원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다양한 공연들을 선보였고,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기술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 한층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도움 활동을 진행했다.

1 - 세아이평강공주보호소 봉사활동

2 -2019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버킷 공연 장면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가 지난 10월 15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한 이번 음악회는 클래식과 국악을 함께 선보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가을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았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 1 - 군산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 2 -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박익숙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이사장
- 3 - 피아니스트 박종훈의 무대 장면
- 4 - 무대에 오른 세아이운형문화재단 후원 아티스트 테너 박기훈

군산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다

지난 10월 15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세아이운형문화재단과 군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세아베스틸이 협찬하는 두 번째 기획공연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며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이날 음악회에 앞서 군산시,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세아베스틸은 군산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익숙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이사장과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두 세아베스틸 대표이사가 참석해 군산시민을 위한 무료문화공연을 지속해 추진하기로 협의했고, 이후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는 13년간 국립 오페라단 초대 이사장 및 후원회장을 역임하며 오페라의 발전을 위해 애썼던 세아그룹故 이운형 회장의 뜻을 이어받은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준비한 지역 음악회로, 문화 향유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시민들이 오페라 및 클래식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는 세아그룹 사업장이 위치한 군산, 충주 등에서 해마다 개최되며, 특히 이번 공연이 열린 군산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세아씨엠 본사, 세아제강 군산공장, 세아 I&S 물류 군산지점이 위치하고 있다. 다양한 레퍼토리와 정상급 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표적인 메세나 활동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 박익숙 이사장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군산 시민분들께 희망과 감동의 울림이 전해지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가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좋은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동서양 음악이 아울러 희망을 노래하다

이번 음악회는 '희망'을 주제로, 경기침체 등 힘든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마음속에 긍정 에너지를 만들며 세상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길 바라는 의도로 기획됐다. 클래식, 오페라, 국악 등 동서양 음악을 통해 슬픔과 절망 그리고 기쁨과 환희를 표현하는 다양한 곡을 연주했다. 1부는 피아니스트 박종훈의 무대로 시작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지난날의 즐거운 꿈이여, 안녕>,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꿈속에 살고 싶어라> 등 오페라 작품 속 아리아를 통해 클래식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피아니스트 박종훈이 오페라가 익숙지 않은 관객들을 위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은 어려운 기교가 많은 곡이지만 에너지가 넘쳐 인기 있는 협주곡이다, 오페라는 귀족들이 시작해 그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라 트라비아타>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다, 오페레타는 희가극으로 당시 굉장히 유행했으며 지금의 뮤지컬과 비슷하다' 등 친숙하면서도 전문적인 해설을 곁들였다.

신시내티 음대 겸임교수를 역임한 조정현의 지휘 아래 코리아 쿼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 그리고 피아니스트 박종훈,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정익근, 바리톤 김진추, 세아이운형문화재단 후원 아티스트인 테너 박기훈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더해져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2부 무대에서는 국악인 김준수와 김윤희, 에스닉 퓨전 밴드 두번째달이 출연해 무대를 꾸몄다. 판소리 '춘향전' 중 <적성가·사랑가·이별가·어사출두>, <진도아리랑> 등 대중에게 익숙한 곡들을 선보여 흥겨운 우리 전통 가락을 선보였다. 특히 국악인 김준수와 김윤희의 재치 있는 입담과 신명 나는 소리는 관객들의 마음을 흠뻑했다. 특히 오케스트라와 국악의 이색적인 협연 무대는 관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들을 거리를 제공했다. 2부 무대는 총 7곡이었지만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앙코르 요청에 힘입어 1, 2부 출연진이 모두 함께 <폐지나칭칭나네>를 부르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



그룹 최초 아디펙(ADIPEC) 2019 참가로 중동 시장을 공략하다

매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는 중동 최대 규모의 오일&가스 전시회, 아디펙(ADIPEC)이 열린다. 올해 전시는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ADNEC(Abu Dhabi National Exhibition Center)에서 개최됐다. 세아그룹은 올해 최초 참가해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섰다.



1 - 세아 부스에 방문한 관람객에게 설명하는 모습
2 - 아디펙 2019에 참여한 각 사의 전시회 담당자 단체 사진



중동 시장 사업 확대를 위한 신호탄

세아그룹은 중동 시장의 사업 확대를 위해 아디펙(ADIPEC) 2019에 참가했다. 아디펙은 중동 최대 규모의 오일&가스 전시회인만큼 올해 전시에 167여 개국, 약 2,200개사가 참가했다. 주요 참가사로는 국영석유업체 애드녹(ADNOC),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 가즈프롬(Gazprom), 페트로나스(Petronas), CNPC, 메이저 오일컴퍼니 셸(Shell), 엑손모빌(ExxonMobil), BP가 있으며, GS Energy,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국내 기업도 참가했다.

세아브랜드관리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참가한 이번 전시에는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INOX TECH, CTC 총 5개사가 참가했다. 그룹 통합 참가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중동 오일&가스 시장 내 세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등 홍보 효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 가스텍 전시와 비교했을 때, 당사에 대한 관심도와 부스 유입 고객 및 관람객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실제 비즈니스 미팅도 다수 진행되었다.

그룹 통합 참가로 시너지 창출

세아그룹은 아디펙 2019에 최초로 참가했다. 이는 해당 전시회 참가에 대한 니즈를 꾸준히 언급해온 계열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전시 PM 역할을 수행한 세아홀딩스 이유진 대리는 각 계열사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해마다 1~2건의 그룹 통합 참가 해외 전시회를 진행하다 보니 주관부서인 커뮤니케이션팀에서 자료나 회신 사항을 급하게 요청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본 업무로 바쁘신 담당자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전시회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시회 동안 수고해주신 세아제강, 세아제강지주,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INOX TECH, CTC, SSUAE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한편, 세아그룹은 작년 9월 가스텍 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가스텍과 아디펙까지 세 번의 그룹 통합 참가 해외 전시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내년 3월에는 세아제강과 INOX TECH이 단독으로 참가하던 Wire&Tube Show에 그룹 통합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

철의 장인

최고를 향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세아 M&S 생산팀 배소파트 정성훈 선임

정성훈 선임은 2007년 세아 M&S에 입사한 이래 지금까지 13년 동안 생산팀에서 배소파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바로 국내의 철강 산업의 핵심 원료인 몰리브덴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현장 최고 선임으로서 베테랑으로 인정 받는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를 만났다.





- 1 - 세아 M&S에서 생산하는 몰리브덴 제품을 배경으로 서 있는 정성훈 선임
- 2 - 정성훈 선임의 명찰
- 3 - 10단 배소로를 통해 생산되는 몰리브덴 옥사이드 파우더

백지 상태에서 쌓아 올린 기술력

정 선임은 세아 M&S에 입사해 몰리브덴 생산 설비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생소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몰리브덴 생산 기술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 모두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초창기 해외에서 온 전문가가 몰리브덴 생산 기술에 대한 기본 이론을 알려줬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응용하는 것은 순전히 저희 몫이었습니다. 12시간 맞고대 근무를 하면서 몰리브덴 생산 기술력을 조금씩 습득했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흘린 수많은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느꼈을 때 비로소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 선임이 백지 상태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뛰며 배운 몰리브덴 생산 기술력을 가장 큰 자부심으로 꼽는 이유가

도전 정신으로 이론 이직

정성훈 선임이 세아 M&S에 입사한 2007년은 그의 나이 서른여덟 되던 해였다. 30대 후반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으로 옮기는 것은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터. 정 선임은 그런 만큼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당시 금호석유화학 품질보증팀에서 실험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두 가지 이유로 용기를 냈습니다. 세아 M&S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몰리브덴 생산업체라는 희소성과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몰리브덴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을 배우고 싶다는 도전 정신 때문이었죠.”

그 시절 정 선임은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부재료인 ‘몰리브덴’에 매료돼 있었다. 원자번호 42번 원소인 몰리브덴은 녹는점이 2,617℃로 전체 원소 중 6번째로 높아 가공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몰리브덴을 첨가한 철강 제품은 고온에서 물러지지 않고 내식성을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몰리브덴은 주로 스테인리스강, 합금강, 특수강 같은 철강 제품에 사용된다. 2007년 우리나라에서 몰리브덴을 생산하는 업체는 세아 M&S가 유일했다. 정 선임이 이직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세아 M&S에서 몰리브덴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큰 원동력이 됐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일하면서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일까. 정 선임은 몰리브덴 정광을 10단 배소로에 투입해 황을 제거하는데, 10단 배소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나온 제품의 황 함유량이 0.1% 미만일 때 가장 기쁘다고 미소 지었다.

나를 있게 한 열정과 책임감의 힘

정 선임이 입사한 지도 어느덧 13년이 흘렀다. 그는 현재 세아 M&S의 핵심으로 통하는 생산팀 배소파트 B조 선임으로 생산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몰리브덴을 생산하는 현장 최고 선임으로서의 열정과 책임감으로 매사 최선을 다한다.

“제가 속한 생산팀 배소파트는 황 함유량이 35~40%인 몰리브덴 정광을 10단 배소로에 투입해 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몰리브덴에 황 함유량이 높으면 불량률이 높으므로 황이 거의 없어야 하죠. 여기서 저는 생산 설비를 가동시킨 후 몰리브덴 정광을 투입해

최종 제품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특히 불량품(Off-spec) 최소화와 생산량 목표 달성, 생산 설비의 가동 일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배소로 내부의 티스 클리닝(Teeth Cleaning) 역시 정 선임의 주된 업무다. 티스 클리닝은 우리가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 스케일링하는 것처럼 배소로 내부의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배소로 내부의 온도는 500~600℃로, 온도가 높다 보니 불순물이 많이 달라붙어 있다. 타격용 도구로 배소로를 쳐서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게 해야 배소로를 안정되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정 선임의 하루는 이전 근무 조 선임과의 미팅으로 시작된다. 조원에게 이전 근무 조에서 발생한 설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후, 현장 기기를 점검하고 티스 클리닝을 한다. 이와 더불어 조정실 모니터링을 통해 온도 체크, 설비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4



5

6

4 - 조정실에서 배소로를 확인하는 모습

5 - 몰리브덴을 생산하는 10단 배소로 내부 모습

6 - 티스 클리닝 작업 중인 정 선임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요즘 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에 한 회사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기란 쉽지 않다. 정 선임이 13년 동안 장기 근속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가족의 힘이 컸다.

“세아 M&S에 입사했을 때 가장 큰 힘이 된 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입사 초기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칠 때 곁에서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라고 말하던 사랑스러운 딸들에게도 마찬가지로요. 항상 제 편이 돼 준 가족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힘을 내 열심히 일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 선임은 장기 근속을 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불규칙한 수면, 식사, 생활 등으로 여러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는 퇴근 후 자전거 타기, 산행, 배드민턴 치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체력을 관리한다. 체력 관리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장기 근속의 비결이다.

정 선임은 생산팀 배소파트 분야 최고의 베테랑으로 인정받는 지금도 여전히 노력의 중요성을 믿는다. 천부적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일을 하거나 뭔가를 배울 때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열심히 일한 지난 13년의 세월 못지않게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솔선수범하며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체력이 최우선이기에 운동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항상 즐겁게 생활할 것입니다. 또한 후배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회사의 주인은 나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인 우리들의 회사, 그게 바로 세아 M&S입니다.”

13년째 오직 한 길을 걷고 있는 정성훈 선임은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그의 진심이 〈세아가족〉을 통해 세아 M&S 생산팀 배소파트 후배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

세아재팬은 세아그룹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해 일본에 판매하는 등 세아그룹의 대일 창구 역할을 한다. 1995년 일본 동경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이래 뛰어난 품질로 일본 고객사의 호평을 받고 있다. 세아재팬 동경사무소 인사/회계 담당 예준희 대리가 세아재팬의 현재를 전한다.

Japan

Tokyo · Osaka



현지 법인 설립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허물다

세아재팬(SeAH Japan Co., Ltd.)

글. 세아재팬 동경사무소 예준희 대리

고객사 니즈를 수용하기 위해 2개의 거점을 마련하다

세아재팬의 첫발은 부산파이프 시절인 1989년 오사카에 영업사무소를 개설한 것입니다. 1991년 영업사무소를 동경으로 이전했고, 대일 무역을 좀 더 활발하게 전개하려 1995년 동경에 현지 법인 PPJ(Pusan Pipe Japan Corp.)를 설립했습니다. 그 뒤 1996년 법인명을 세아재팬(SeAH Japan Co., Ltd.)으로 변경했습니다. 세아재팬은 세아제강 제품인 파이프를 비롯해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에샵, 세아씨엠, 세아메탈, 동아스틸 제품 등을 일본과 제3국에 판매합니다. 그중 대일 판매 주력 상품은 건설 현장에서 쓰는 구조관, 자동차 부품과 정밀기계 등 산업의 핵심 소재인 관재류와 봉재류,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용접재료입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열연코일(Hot Coil), 스크랩 등을 구입해 계열사에 공급하기도 하죠. 일본은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3.8배로, 동쪽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서쪽 최남단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긴 형태입니다. 이에 동일본과 서일본에 위치한 다양한 고객사의 니즈를 수용하기 위해 동일본 최대 도시 동경과 서일본 최대 도시 오사카에 영업사무소를 두었습니다. 현재 세아재팬에는 법인장을 비롯해 주재원 5명과 현지 채용 직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경사무소에 9명, 오사카사무소에 4명이 있고, 큐슈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1명씩 파견돼 있습니다. STEEL 부문 직원은 주로 세아제강과의 거래를 담당합니다. 세아제강에서 생산한 관재류를 수입해 일본에 판매하고, 일본 내 제철 회사로부터 코일을 구매해 세아제강, 세아씨엠, 세아스틸비나(SSV) 등에 판매하죠. TRADING 부문 직원은 철광석 판매를 맡고, ADMIN 부문 직원은 회계·자금·인사 같은 회사 살림을 챙깁니다. ESAB 부문 직원들 같은 경우 세아 ESAB에서 생산된 용접재료를 수입해 일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아재팬 매출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약 210억 엔 규모입니다. 역대 대표이사과 직원들의 열정과 노고로

1995년 11억6200만 엔이던 매출액이 2018년 210억 2300만 엔으로 20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세아재팬이 20년 동안 일본에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내 다른 강관업체와 달리 일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 사무소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고객사에서 불만이 발생하면 현지 법인이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이 덕분에 고객사와의 신뢰 관계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고객사와의 소통과 신뢰 관계 구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간다

일본 철강업계는 내수 시장이 성숙하고 올림픽 특수가 종료돼 감에 따라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는 실정입니다. 10년 전 일본 내 고로사는 5개였지만, 글로벌 철강 시장 악화에 따른 M&A 등으로 지금은 3개사만 남았습니다. 고로사와 관련된 상사, 강관업체, 스테인리스 스틸업체 등도 M&A를 진행하면서 일본 메이커 수 역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폐쇄적이었던 일본 시장에서 해외산 제품을 수용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아재팬은 일본 지역의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최고의 품질 및 관리 수준을 추구하는 폐쇄적 문화를 지닌 나라입니다. 자국산 제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타국산 제품이 소외되는 경우도 많죠. 세아재팬은 고객사와의 소통과 신뢰 관계 구축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것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수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아재팬이 계열사에 수출하는 열연코일이나 스크랩은 수출 규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 피해는 없지만 철강 제품이 수출 규제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객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단, 열연코일의 경우 일본 고로사의 수출 물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한국이고,



1



2

- 1 - 오사카사무소에 근무하는 주재원과 현지 직원들
- 2 - 세아재팬 동경사무소 로비 전경

스크랩 역시 한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한국으로 수출만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일본의 철강 제품에 대한 규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합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아재팬 역시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기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좀더 성숙하고 건설적인 공생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고의 접객 문화, 오모테나시



일본 문화 중 한국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최고의 접객 문화로 통하는 오모테나시입니다. '최고의 환대'를 뜻하는 오모테나시는 '물건 등을 가지고 끝까지 완수하다'는 '모테나스(持て成す)'와 높임말인 '오(お)'가 합쳐진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오모테나시는 서양의 서비스와는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서 물수건을 주거나 호텔 객실에 이부자리가 준비돼 있으면 서비스인 반면, 물수건을 건네면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이부자리 옆에서 '천천히 쉬다 가십시오'라고 말하면 오모테나시입니다. 즉, 오모테나시는 고객이 알고 있거나 기대할 만한 서비스 밖의 배려로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센스를 나타냅니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팁 문화가 없는 만큼 대가를 구하지 않고 상대를 존경하고 세심하게 대합니다. 이는 장사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바로 오모테나시입니다. 일본인의 서비스마인드와 접객 시 세심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동네 작은 마트나 허름한 음식점에서도 손님을 허투루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옷을 사면 제품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뒤 정리해 포장해 주고, 거스름돈을 줄 때도 지폐 매수를 손님에게 일일이 확인시켜준 뒤 지폐를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해서 줄 정도니까요. 한국에도 버선발로 손님을 맞는 미풍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모테나시를 벤치마킹하면 우리 특유의 정 문화와 결합해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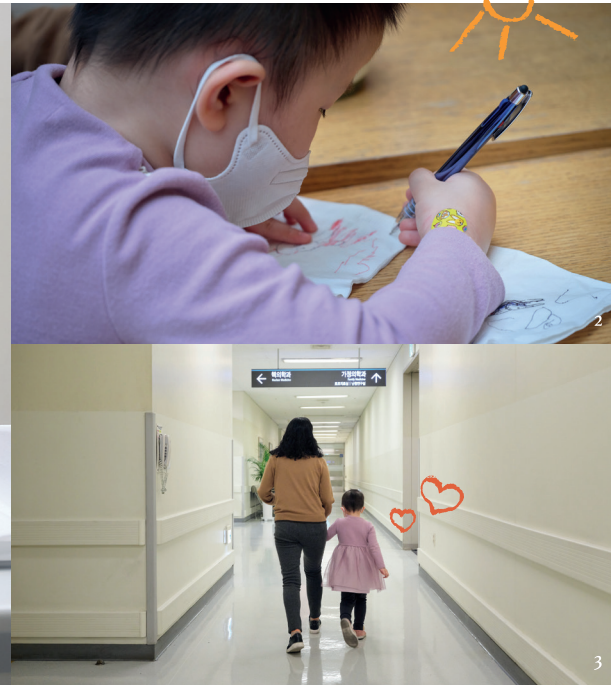
오모테나시와 더불어 일본 여행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휴대전화 통화를 자제합니다. 일본인은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굉장한 실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미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버스가 멈추고 난 뒤 내립니다. 택시는 기본적으로 뒷좌석이 자동문입니다. 타고 내릴 때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니 주의하세요. 음식점에서 면류를 먹을 때 소리 내며 먹어도 되고, 개인 접시와 공용 국자를 사용합니다. 젓가락 놓인 방향이 우리나라와 다르니 주의하세요. 온천할 때 탕 안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몸을 씻습니다. 료칸 등에서 남탕과 여탕이 아침저녁으로 서로 바뀌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하민이에게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나눔세아 캠페인은 세아인의 마음을 모아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응원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 공헌 활동이다. 올해는 신경모세포종이라는 소아암과 싸우고 있는 하민(가명)이의 이야기를 전한다. 하민이가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아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모아질 기대한다.



- 1 - 핵의학 검사의 일종인 MIBG 스캔을 위해 누워있는 하민이
- 2 -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지 기차길을 그렸다.
- 3 - 엄마 손을 잡고 검사실로 향하는 하민이의 모습

건강한 아이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병마

하민이는 '16년 2월, 3.38kg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랜 시간 아이를 기다려 온 하민이 부모님은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하민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민이는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잔병치레 한 번 없던 아이가 편도염으로 고생했고, 부모님은 좀 더 세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엑스레이(X-ray) 검사 결과, 종양이 발견되었고 갑작스레 신경모세포종이라는 소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꾸준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소아암

하민이가 투병 중인 신경모세포종은 소아암 중 하나입니다. 전신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부신과 척추 주변에 종양이 발생합니다. 소아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율(5년생존율)이

80%입니다. 하지만, 치료 후 부작용이나 재발률은 60%로 완치 후에도 꾸준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병입니다. 소아암의 평균 치료 기간은 3년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의 치료비가 들어 아픈 아이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고액의 치료비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민이는 '19년 2월 항암치료를 위해 중심 정맥관 삽입 수술을, 7월에는 종양 2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항암치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항암치료는 끝났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매달 혈액 검사를 받고, 2~3달에 한 번씩 MRI, MIBG 등 추적 관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어린 하민이에게 '서울'이라는 단어는 아픈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엄마의 통화내용 중 '서울'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주사 맞기 싫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기적의 아이콘에서 희망의 아이콘으로

하민이는 오늘도 계속되는 검사와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치료 과정일 텐데도 밝고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유아시기의 항암치료는 성장도 멈추기 마련이지만, 키가 5cm나 커서 병원에서는 기적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민이는 올해 4살입니다. 하지만 여느 4살과는 다릅니다. 목걸이를 보면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코에 가져다 댍니다. 하민이에게 긴 호스나 줄은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코에 연결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놀이터에서 또래 아이들과 뛰어 노는 평범한 4살 아이의 일상을 하민이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하민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나눔세아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세아가족 여러분, 하민이에게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

〈나눔세아〉하민이 후원방법

QR코드 후원

1. QR 코드를 찍어 나눔세아 사이트 접속
2. '후원 종류 선택' 후 '후원자 정보 입력'
3. '후원금 결제' 클릭

지정 계좌 후원

국민은행
479037-01-017335
(사)홀트아동복지회

나눔세아 사이트 바로가기



-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금 입금 날짜에 따라 '19년 또는 '20년 영수증으로 발급됩니다. (19년 12/31까지 후원할 경우 '20년 1월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이체하신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홀트아동복지회 나눔협력팀 김유진 책임(02-331-7142)에게 연락 또는 withholt@holt.or.kr로 메일 발송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좌 후원 시 보내는 이 앞에 '세아'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아이유진)
- 후원금 영수증 발급 외 전반적인 캠페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이유진 대리(02-6970-0093)에게 연락 또는 yujin.lee@seah.co.kr으로 문의해주세요.

세아인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조직 생활, 자기 개발, 인간관계, 처세술, 진로 고민, 외국 생활 등 직장에서 겪는 세아인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세요. 13년 차 직장인이자 상담가인 최과장이 상담해드립니다.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최과장의 심리상담' 연재가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최과장의 심리상담'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운셀러 소개 | 최과장 (필명)

13년 차 현직 직장인.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석사 졸업 후,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직장인 대상 심리상담서 『오늘, 내대신 출근 좀 해줄래?』 저자이며, 브런치에서 최과장의 직장인 심리생활(<https://brunch.co.kr/@sogangbest>)을 연재하고 있다.

Q1

저는 조직에 맞지 않는 인간형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취업했을 때는 정말 좋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은 제 성격이 조직 생활과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 안에서의 갈등과 관계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정해진 규칙과 짜인 인간관계 속에서 지내는 것을 남들보다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조직 속에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 할까요?



현명합니다. 어떻게 판단해볼 수 있을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조엘 피터슨 교수는 지금 하는 일에 대해 스스로 세 가지 질문을 해볼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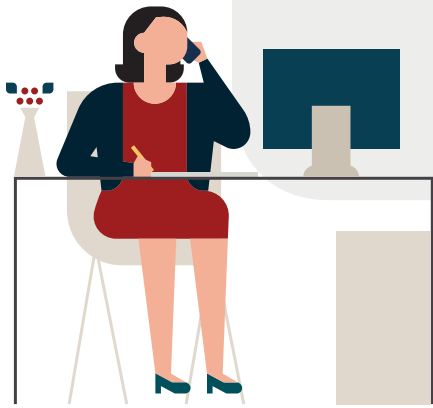
A.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익 창출을 위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매정한 상황에 노출될 때가 종종 있죠. 다양한 사람이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직장이 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사람,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직원들을 대하는 분위기, 회사의 경영 상황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직장을 구성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같은 회사라도 주위 사람이 바뀌면 회사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므로 '나는 회사 자체가 안 맞는 사람이다'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엔 나와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듯, 이 세상엔 나와 맞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사 자체와 맞는 사람인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회사가 나와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난 이 일을 하며 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재능 있다고 느끼는 일이라면 뭔가 배우고 성장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의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가?'입니다. 진정으로 열정을 담아 일을 한다면 일을 할 때든, 하지 않을 때이든 새로운 방식과 아이디어가 자주 떠오릅니다. 세 번째, '일을 끝내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보람을 느끼는가?'입니다. 일과를 끝내고 침대에 누웠을 때, 뭔가 뿌듯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든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감정을 자주 느낀다면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길 추천합니다. 만약 세 가지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면 우선 이직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 후에도 같은 고민을 한다면 그때 가서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적인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Q2

회사에서 자리 비우기 눈치 보여요

직장생활 8년 차 '워킹맘 직장인'입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을 때, 아이 유치원 발표회 때,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때 등등 회사에서 자리를 비울 때가 꽤 많습니다. 워라벨을 강조하는 분위기라 예전보다는 덜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불편한 마음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앞으로도 4~5년은 계속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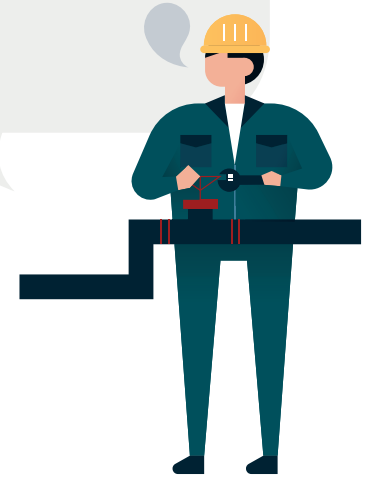
A. 최근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보았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또 있을까요? 집안일로, 아이 일로, 회사에서 자리를 비우면 종종 눈치가 보이죠. 회사에서 받은 연차를 당당하게 쓰는 것도 괜히 망설여집니다. 개인의 권리이지만 얘기를 꺼내기 쉽지 않죠. 내가 워킹맘이라는 사실이 자신을 위축시키기도 하고요. 하지만 불편한 마음은 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미국의 인기 육아 정보 앱 '위스프링'의 창업자인 엘리슨 다우니는 미국 경제잡지 <패스트 컴퍼니>에서 워킹맘이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제 막 부모가 된 부모는 효율적으로 업무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육아에도 시간을 썬다 하기에 회사에 있는 동안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게 쪼개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워킹맘은 회사 일을 더 신나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약 6개월간의 육아 휴가를 다녀온 저로서는 육아할 때 자괴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온종일 집에 있으며 아이만 돌보는 것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가게 되면 더 즐거운 마음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복귀 후 실제로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육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복귀 이후 일을 더 효율적이고 몰입해서 하기 때문이죠. 해리 포터를 쓴 작가 조앤 K 롤링도 어린아이를 카페에서 재워가며 글을 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Q3

밤낮이 뒤바뀐 일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3교대 근무를 하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남들 자는 시간에 일할 때도 있고, 남들 일하는 시간에 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이 불규칙하고 그만큼 신체 리듬도 불규칙합니다. 5년째 이곳에서 근무 중인데, 연봉은 제 또래 친구들보다 높은 편이지만 지금의 생활이 행복하진 않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누군가는 배부른 투정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3교대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5년 정도 스케줄에 따라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6시 반까지 출근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낮 12시 반까지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일찍 출근하는 날은 너무 일찍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는 날은 너무 늦게 퇴근해서 가족들과 어울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 '이 일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인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는 당신도 지금 하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를 스스로에 물어보길 권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일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과제와 맞닿아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린 누구나 삶의 과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삶의 과제가 없는 삶은 목적지가 없는 배와 같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는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는 것입니다. 그 배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디로만 가면 됩니다. 목적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허무감이 밀려오고 불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뚜렷한 여행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느끼고 싶은 곳, 있고 싶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행복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삶의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길입니다. 연봉이 높다고, 유명한 회사에 다닌다고, 내 직장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에 다녀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직원이 있고, 작고 유명하지 않은 회사에 다녀도 행복을 느끼는 직원이 있습니다. 행복한 내 직장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담아, 특별한 만삭 사진을 기록하다

세아베스틸 글로벌마케팅팀 장원 대리

단풍이 떨어지는 늦가을, 올림픽공원에서 훈훈한 모습의 부부를 만났다. 바로 세아베스틸 글로벌마케팅팀 장원 대리와 그의 아내 조미진 씨다. 과거 연애 시절, 커플 사진을 찍었던 이곳에서 또 다른 추억을 남기고 싶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쫄쫄이를 기다리는 부부

2015년 4월 4일 결혼한 세아베스틸 글로벌마케팅팀 장원 대리와 그의 아내 조미진 씨는 올해로 4년 차 부부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부부는 매번 사보를 볼 때마다 <세아 패밀리> 코너를 관심 있게 봤고, 출산을 한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만삭 사진을 남기고 싶어 지원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는데, 올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기적과 같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황금 돼지띠의 마지막 달에 태어나며, 첫째 아이가 딸이라 더욱 기쁩니다. 왜 첫째가 딸이면 100점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 부부를 보면 남매처럼 닮았다고 하는데, 특히 코가 많이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기 초음파 사진을 보니까 저희 코를 많이 닮았더군요. 역시 유전자의 힘은 대단합니다. 사진 찍기 좋아하는 저희 부부에 게도, 이제 곧 태어날 아이에게도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태명은 쫄쫄이. 독특한 태명은 부부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태명은 된소리로 지어야 아기가 잘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이름 조미진의 ‘쫄’과 제 이름 장원의 ‘쫄’을 따서 쫄쫄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작명 센스가 쫄쫄인 것 같지 않나요? (웃음)”

- 1 -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엄마, 아빠의 모습
- 2 -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웃는 장원 대리와 아내 조미진 씨
- 3 - 곧 태어날 쫄쫄이를 위해 준비한 아기 신발



부부의 추억이 담긴 올림픽공원

장원 대리 부부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2013년 11월경 이곳 올림픽공원에서 커플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평소 사진 찍기를 취미로 즐기는 아내 조미진 씨가 근무하는 회사 부장님이 찍어준 것으로, 그해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든 올림픽 공원에서 추억을 만들었다. 장원 대리는 사진을 찍었던 6년 전 그날을 회상했다.

“당시 아내 회사의 부장님께서 목직한 카메라를 들고 오셨고, 4시간가량 열정적으로 장소를 옮겨 가면서 찍었습니다. 사진을 워낙 많이 찍어 주셔서 나중에 원본 파일 받아보니 수백 장은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차에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으면서 모델이 된 마냥 즐겁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 다시 올림픽공원을 찾았다. 장원 대리는 처음엔 사진 찍은 장소를 기억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와보니 그때의 감정이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난다며 소감을 전했다.

“아내와 다시 한번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친절하게도 여러 가지 사진 컨셉을 준비해오신 세아가족 스태프분들 덕분에 같은 장소에서도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딸 아이가 태어납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외출할 수 있을 때 완전체로 다시 한번 같은 장소에서 찍고 싶네요.”

함께 있어 행복한 가족

장원 대리 부부는 모델 못지않은 포즈와 표정으로 촬영에 임해 그들을 찍는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아내 조미진 씨는 만삭임에도 힘든 기색 없이 화보 촬영 내내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그 모습 덕에 촬영장 분위기까지 훈훈해졌다. 두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다. 마지막으로 장원 대리는 아내 조미진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아내는 제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준 사람입니다. 저는 만사에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고, 삶에 큰 자극이나 변화를 피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외국계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면서 외국인 동료와 교류하고,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도 쌓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자극이 되었고, 아내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저절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지금 글로벌마케팅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아내의 조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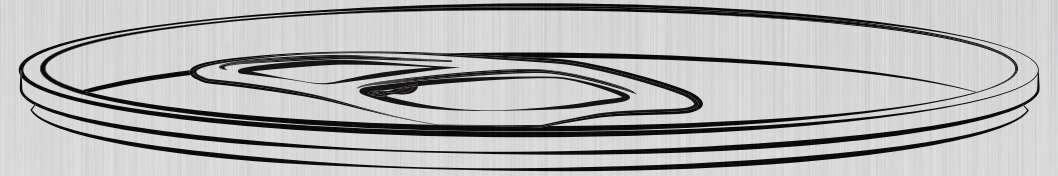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는 장원 대리 부부. 지금처럼 행복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 아이는 멋진 사람으로 자랄 것이다. ☺

음식 역사를 바꾼 보존식품

통조림



통조림은 우리 식생활과 아주 밀접한 도구다. 인류 식품 보존의 역사를 바꾸고 식생활을 한층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었다. 통조림의 발명과 역사, 원리에 대해 알아본다.



옛사람들은 먹을 것이

고갈될 때를 대비해 식품을 저장했다. 건조와 염장, 훈연 등의 방법으로 저장식품을 만들었다. 지금 같은 식품 보존법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800년 경이다. 그때 인류의 역사에서 식품 보존의 획기적 사건이 벌어진다. 1804년 프랑스의 요리사인 니콜라 프랑수아 아페르가 병조림을 고안한 것이다.

당시 프랑스는 황제이자 군인인 나폴레옹이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며 전쟁을 치른 탓에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군인들은 굶주리거나,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바람에 괴혈병에 시달렸다. 음식을 장기간

보존할 방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프랑스 산업장려협회는 음식 보존 방법에 대한 공모를 내걸었고, 1등은 밀봉과 살균의 원리를 이용한 병조림을 제안한 아페르에게 돌아갔다. 아페르는 상금으로 1만

2,000프랑을 받았는데, 이는 은 54kg에 해당하는 만큼 큰 액수였다. 아페르가 개발한 병조림은 입구가 넓은 병에 폭 삶은 고기와 채소를 넣고 병째 가열한 뒤 뚜껑을 덮어 입구를 밀봉하는 방식이었다. 이 덕분에 음식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게 된 프랑스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아페르는 '통조림의 아버지'로 불렸다.

영국은 프랑스의 병조림을 뛰어넘는 식품 보존법을 개발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병조림보다 가볍고 튼튼한 보존 용기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마침내 기계 공인 피터 듀란드가 홍치를 보관하는 통인 캐니스터에

작안한 통조림 용기를 만들었다. 듀란드는 철의 단점인 산화되는 성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주석에 주목했고, 안팎으로

주석을 입힌 얇은

철판인 양철을 서로 연결한 뒤 접합 부위를 납땜으로 밀봉한 통조림 용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1810년 세계 최초의 양철 통조림 용기인 주석 강통으로 특허를 받았다. 이후 1812년에 듀란드의 특허를 구입한 돈킨과 홀이 영국 버몬지에 세계 최초의 통조림 공장을 세웠다. 시간이 흘러 더 가벼운 통조림 용기가 나왔고, 캔 파게 발명으로 통조림 속 내용물을 꺼내기가 훨씬 편리해졌다. 이 덕분에 통조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식품은 물론이고 음료가 든 통조림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통조림의 제조 원리는 원료의 종류에 따라 약간

차이 날 뿐 대개 비슷하다. 식품을 세정·조리해 담고 조리액을 채운 뒤 공기를 제거하는 탈기 과정을 거쳐 밀봉한다. 그 다음 살균·냉각한 뒤 검사를 거쳐 상자에 넣어 포장하면 완성이다. 용기는 철판에

전기주석 도금을 한 양철통을 많이 쓰는데, 보통 두께가 0.214~0.320mm로 제강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얇은 판이 만들어진다. 최근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캔도 많이 사용한다. 플라스틱 필름에 알루미늄 박을 붙인 살균 가능한 봉지 용기인 플렉

시블 캔(Flexible Can)도 통조림의

한 종류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만

들어지는 통조림은 사용이 편

리하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 우리 식생활에

서 떼려야 뗄 수 없으니,

새삼 얼마나 유용한 물건인

지 깨닫게 된다. ☺





세아 뉴스

| 세아제강 |



2019 세계일류상품 강관분야 6개 상품 인증

세아제강은 지난 11월 21일 '2019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에서 신규 선정 2개 품목을 포함한 총 6개 품목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였다. 국내 강관제조사 중 세계일류상품에 6개 강관 제품이 등재된 곳은 세아제강이 유일하다. 백남준 기술연구소장은 “이번 수여식을 통해 세아제강의 품질력 및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강관 산업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세아베스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군산공장 방문

지난 10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역경제 현안을 청취하고 현장 시찰을 하기 위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방문했다. 이춘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기재위원과 기재부 예산실장, 기조실장, 정책조정국장, 군산시장 등 군산공장을 방문하여 철강 산업 현황과 애로사항 청취, 현장 견학의 시간을 가졌다. 이춘석 위원장은 “전북 경제에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원 기재위와 기재부가 직접 현장의 어려움을 보고 듣는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다”며, “앞으로 세아베스틸뿐만 아니라 전북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재위원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아창원특수강 |



하동 저소득 세대 건강도우미 약상자 지원

세아창원특수강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저소득가정 20세대에 건강도우미 약상자를 지원했다. 건강도우미 약상자 지원사업은 세아창원특수강과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경남도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이뤄졌다. 약상자는 세아창원특수강 임직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도내 의료혜택이 부족한 시골 마을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세대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한 것이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세아특수강 |



2019년 파스너 조합 고객사 초청 설명회 개최

지난 10월 17일, 세아특수강은 파스너 조합 고객사를 포항공장으로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박 2일 공장 투어와 강종 개발 현황 소개 등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태양금속, 선일다이파스, 풍강, 케이피에프 등 참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세아특수강 박상화 본부장은 “최근 업계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국가 간 무역 갈등의 심화 등으로 내수 및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데 상호 경쟁력 제고를 통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의미로 행사를 마련했다. 세아특수강은 지난 30년간 고객들과 동반 성장해왔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소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세아 M&S |



3억달러 수출의 탑 · 금탑산업훈장 수상

세아 M&S는 지난 12월 5일 제56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3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마정락 대표이사는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세아 M&S는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여 전년 대비 52% 증가한 3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2017년 1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한 후 불과 2년만에 '3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또한 마정락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투자와 품질개선으로 글로벌 원가경쟁력을 확보해 대외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하였다.

| 세아엔지니어링 |



전사 '한마음 등산대회' 실시

세아엔지니어링은 11월 1일 '한마음 등산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조직 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고된 근로의 피로를 씻는 재충전의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등산대회는 대전 계족산에서 실시했고, 등산 후 전사 회식을 통해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세아엔지니어링은 앞으로도 구성원 간의 단결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질 예정이다.



사우 동정

세아제강지주

조의
류 청 SSV(부친)

세아제강

결혼
김규진 순천 품질경영팀
김준호 포항 생산2팀
방성현 포항 업무지원팀
 출산
최성욱 포항 선형연구팀

조의
김종찬 포항 생산팀(빙모)

세아베스틸

결혼
김원빈 소형압연팀
김민수 2제강팀
장다운 2제강팀
이현우 1제강팀
 출산
최봉환 제품연구3그룹

조의
한경상 1제강팀(부친)
오인철 대형압연팀(모친)
공 결 소형압연팀(모친)
하홍석 품질보증2팀(빙부)
고윤곤 품질보증2팀(빙부)
최용인 소형압연팀(빙모)
조연근 소형압연팀(빙모)

세아창원특수강

입사
아델리아 하미에바
글로벌마케팅팀
 결혼
우한별 제품연구3그룹
옥진수 영업1팀

출산
허만진 가공팀
윤영석 공정연구2그룹
권혁일 대형압연팀

조의
서영준 소형압연팀(모친)
제봉수 가공팀(빙부)
문병구 대형압연팀(빙모)
박윤섭 2제강팀(빙모)
박길주 소형압연팀(빙모)

세아특수강

조의
금기철 서울 영업전략팀(부친)
박성목 부산 부산영업소(부친)

세아 FS

출산
최영민 경영관리팀

세아씨엠

입사
윤소현 컬러견재영업팀
 결혼
김병수 수출팀

세아 ESAB

조의
박종성 생산팀(모친)

세아메탈

결혼
이도원 원주 영업개발팀
 출산
김상현 원주 생산팀

세아 M&S

조의
조용권 경영지원팀(부친)
김혜림 자원팀(부친)

세아 L&S

입사
양은정 판재영업1팀
 결혼
박혜림 당진공장
 출산
신동주 인천영업소
 조의
임재규 경영지원본부(빙부)

세아엔지니어링

입사
오정화 개발2팀
김태민 개발2팀
 출산
장문선 구매팀
최재준 서비스팀
박기덕 기술팀
이준호 설비기술1팀

세아네트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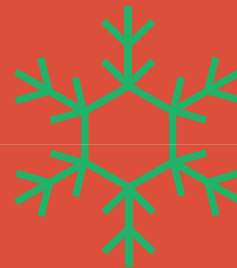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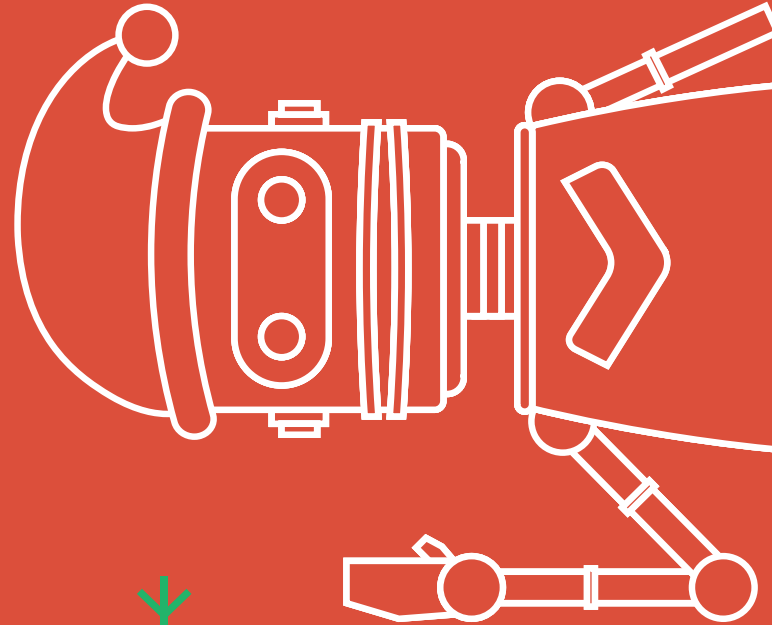
입사
박효근 재경팀
이규택 DT인프라운영팀
조운석 DT플랫폼팀
백기현 DT플랫폼팀
김민우 신재생에너지사업팀

결혼
김윤식 기간통신사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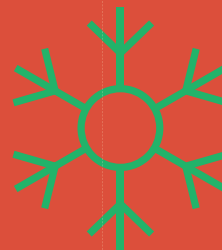
출산
이경민 SI팀



Merry
Christmas



SēAH



(세아가족)에서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정취선을 따라 읽고 반으로 접으면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가 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세요♡



내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우리 집에 특별한 동거인이 있다? 강아지, 고양이, 장수하늘소, 하늘다람쥐, 이구아나 등등. 세아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매 호 한 분의 사연을 선정해, 반려동물용품들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북가좌초등학교 5학년 7반 양희석 (세아제강 수출3팀 양흥모 팀장 아들)

우리 집 귀엽둥이, 꼬북이를 소개합니다!

· 종류 : 페닌술라 쿠터
· 나이 : 4살

우리 귀여운 꼬북이는 2016년 5월 우리 집에 왔어요. 아기였을 때 데려와서 벌써 4살이 다 되어가네요. 좋은 페닌술라 쿠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꼬북이를 보는데, 꼬북이가 저를 맞이해주듯이 목을 짹 내밀 때 가장 사랑스러워요. 물론 매주 물 갈아줄 때는 좀 힘들기도 하지만요.....

얼마 전 엄마가 꼬북이에게 근사한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편안한 낮잠 장소인 넓적한 바위, 고운 자갈, 수풀은 물론 물레방아도 있어요. 제 침대보다 더 근사해요. 오우 예스. 꼬북이를 기르기 전에도 거북이를 기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11년 여름, 아빠 회사 때문에 두바이로 이사를 가야 해서 1년 정도 키우던 거북이 두 마리를 누나 친구네 부탁하고 갔었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족관에 보냈다고 해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이젠 헤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어요. 이 아이는 40년을 산다고 하는데, 엄마는 제가 결혼하면 데려가래요. ㅋㅋ



📧 '내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응모 방법

- 1 반려동물과 얹힌 에피소드를 8~10줄 내외로 작성한다.
- 2 반려동물이 잘 나온 사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2~3장(1MB 이상) 고른다.
- 3 메일에 사연과 사진을 첨부하고, 개인 정보(소속, 직책, 이름)와 반려동물 정보(이름, 종류, 나이)를 함께 기재해 커뮤니케이션팀 이유헌 대리(yujin.lee@seah.co.kr)에게 보낸다.

📺 11+12월호 선물



스파크주
클립타입
거북이
파충류
램프 소켓